性모랄의 상식 부수는 奇人性

마광수 시집「귀골」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시적으로 보아 비슷한 종류의 奇人은 항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기인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일상적'으로 노출되느냐 하는 것은, 그 세태가 그의 기인성(그것이 일탈이든 선진성이든 간에)을 얼마나 매력적인 것으로 포용하는가에 따를 것이다.

낱낱의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고유한 권리와 자유, 개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도도해져 가고 있는 요즘, 性에 대해 독특하리만치 탐닉적 자유를 외치는 지성인의 詩에 주목하게 된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의 연세대 마광수 교수 작품이 그 대상인데,「나는 야한~」「가자 장미 여관으로」 등 그의 대표작들이 실려 있는 처녀시집「귀골」(평민사, 1989)에는 性과 인생을 연결짓는 그의 정신세계가 사실적인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 그의 선풍적인 인기는 그의 작품이 性모랄을 다루던 기존의 성윤리 문학과는 주제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性관념에 붙은 허위적(?) 도덕성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의 詩들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무조건의 감사나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이기심에 한 생명을 삶 속에 '싸질러 놓는'식의 무책임한 통속적 행위 모두를 거부하고, 이 시대의 지성인임에도 이미 상식화되어 있다시피 한 민주주의에 대한 항시적인 몰두는 불가능하다는 자기모순 고백으로까지 확대, 그가 벗어나고자 하는 세계가 단순히 성윤리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둘러싼 세계 안의 묵은 도덕관 전부를 가리키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때문에 그의 작품세계를 통한 색깔이 유독 성의 해방을 부르짖는 대목에서 기인적이리만치 짙다 해도, 그의 육성은 인간을 둘러싸 덮누르는 모든 허위와 과장을 대놓고 비웃는 일종의 진실추구와 용기에 가까움을 인정할 수 있겠다 .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무게마저 홀가분하게 벗어젖히고마는 것처럼 보이는 성에 대한 그의 괴이한 탐닉과 그 노출에는 분명 '개인적'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어떤 종류의 기인성도 전대미문의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그 기인성을 용납함으로써 사회 안에 하나의 개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는 상식에 기대어 본다면, 마광수 작품의 인기와 함께 일고 있는 찬반시비는 독자인 일반인들 내부의 반성 문제로 돌려야 할 것이다.

시간을 거듭해가면서 당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대강의 결론이 나는 윤리. 마광수의 작품세계가 비록 개인으로서의 그 인간의 윤리를 더욱이 작가 개인만의 목소리로 담아냈다는 편협성은 갖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 독자들이 갈망하는 주된 관심거리와는 다소 엉뚱한 거리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작품은 그의 기인성을 용납하고 때로 선호한다는 사실에서 일편 닮음꼴일 수 있는 현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렌즈가 될 수 있다 하겠다.

朴慈曝

인천시 북구 부평6동 643-6 미주아파트 304호

에피소드로 엮은 불교의 세계

李箕永 지음「宗教史話」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이는 예외로 치더라도, 대개 평범한 일상인에게 종교는 으레 감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득한 세계로서 상상되기 일쑤다. 신적 존재가 나에게도 강림하여 두려움 · 슬픔 · 고독 · 절망을 떨쳐주고, 심지어 기쁨까지 같이 해주길 소망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세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양 좀체 지상에 내려오려 맘을 먹지 않는다.

어떻게든 눈앞에 직접 드러난 실체를 확인한 후에야 안도감을 갖는 이 불신의 시대에, 믿음까지도 그런 공해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설사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배움으로 들어선 이 시대의 그 두터운 지식의 층이 그런 信心의 관류를 뿌리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위 어느 것에도 웬만해서 외경심을 품을 줄 모르는 세태가 되었음을, 그리고 어느 것에도 정성과 감동을 보이지 않는 대신 편리함과 배부름으로 도색된 행복관만이 제왕처럼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행복은 그 전제를 안고 있는 바, 가령 추상적이기보다 실체적이어야 할 것, 지루한 정신적 탐구보다 물질적인 유희성이 강해야 할 것, 육체적으로 늘 건강해야 할 것 등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행복의 궤도는 곧 우리의 열차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행복의 전제가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어둡고 고통스런 불만의 시간대에 서 있음을 스스로 곧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이 땅 위에 놓인 사람들만 그랬을까. 평소에 지녔던 이런 생각들을 상기시키듯, 내 손에 들어온 책이 李箕永교수의「宗教史話」(한국불교연구원)였다.

'史話'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책은 흥미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난해한 불교의 교리에 문외한인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유효함을 간파한 원로 교학자의 슬기라 하겠다.

불교학자로서 그가 이끄는 소요의 길은 시대로는 주로 삼국 이전, 공간으로는 인도, 중국,우리나라를 넘나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 그것도 불교와 결부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치를 발현한다면 그것은 代체험의 성격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리라.

간략한 심상적 주제가 많은 소재를 각각 다루고 있는데, 불교의 발생에 결부된 석가모니의 개인적 설화, 불교에 있어 신비체험의 많은 예들, 異宗教와 불교의 갈등 설화 등이 그것이다. 또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관들, 예컨대,天 · 龍 · 귀신 · 도깨비 · 지옥 · 극락 등이 흥미로운 음성으로 호기심을 북돋운다.

지극히 엄숙성이 강하고 보수적 내음이 농후해 접하기 어려웠던 불교가 현대인에게도 결코 긴장과 낯설음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부각시키되, 그것이 흥미와 반죽되어 어느덧 저 깊은 교의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책이 지닌 진정한 장점이라 하겠다.

김승호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141-208 · 신문기자

역사를 헤쳐가는 지성인의 자화상

이영희 지음「歷程」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지식인 중의 한분으로서 우리는 서슴없이 이영희교수를 꼽는다. 우리는 이교수를 통해 허위적이고 나약한 지식인상이 아니라, 용기있게 자신의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고뇌하는 지식인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세상에 대한 안목을 바꾸게 해주는 책들 중에는 이교수의 저서가 많다. 특히「전환시대의 논리」,「우상과 이성」,「분단을 넘어서」 등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대학생들의 필독의 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른바 '의식화 서적'의 저자로서 이영희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나간 행적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교수에 대한 객관적인 저작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지난 얘기를 기술한「歷程」(창작과비평사)이 나왔다는 것은 저자의 저서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저자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자서전을 쓸때 범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오류를 이 책의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나온 과정을 자신의 글로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자신의 저서를 읽었거나 앞으로 읽을 독자들에게 자신의 글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에 대한 의무감으로 이 책을 저술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환시대의 논리」,「우상과 이성」 등 저자의 일련의 작품을 통해 구축해 놓은 이영희라는 지성인이 벌거벗은 채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이 책을 읽어가는 도중에 많이 느낄 수 있다. 작년 3월에 출간된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본다면, 자기자신의 투쟁적 행동을 좀더 미화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사는 쓰지 않아도 누구하나 나무랄 독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는 저자의 치졸한 면, 객지에서의 치기, 부모에 대한 불효, 군에서의 만용, 외국신문에 대한 사대주의적 발상 등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런 분이 이른바 의식화 서적을 쓸수 있나 하고 놀라게 된다. 이 책은 자신에게 부담지워진 일련의 우상적인 명성을 자신이 스스로 허물어내고, 좀더 진실된 모습의 자신의 저서가 일반독자에게 소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읽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의 사회적인 명성은「전환시대의 논리」가 발표된 70년대가 고비였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저자 자신의 투쟁역정을 미화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오히려 70년대 이후의 자신의 역정을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유년시절부터 저자의 나이 34세인 1963년까지의 자신의 인생유전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에 좀더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했던 한 지성인의 젊은날의 초상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홍영표

(주)교보문고 특수영업부

사물인식의 행복한 출발

장석주 시집「어느 길에 관한 기억」

장석주 시인은 시를 아끼는 독자들에게 그리 낯선 이름이 아니다. 이미 3권의 개인시집과 1권의 시선집, 그리고 산문집 2권, 평론집 2권으로 글의 영역으로 보면 아주 다양한 세계를 펼쳐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펴낸「어느 길에 관한 기억」(청하, 89)은 이제까지 나온 어떤 시집에서보다 장석주 시인의 시세계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보여주어 기쁘다. 이 중요한 자리매김에 대해 필자가 느끼는 몇가지를 살펴봄으로써 한 새로운 시집을 읽는 기쁨에 빠져들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시집의 차례를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각각의 시편 제목들이 名詞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새롭다. 명사들은 낱낱의 사물들을 구체적·현상적으로 드러내주는 특징이 있다.

장석주 시인이 오랫동안 침잠해 있던 세계는 아무래도, "不可解한 세계의 몽롱한 꿈꾸기였음"은 그의 지난 시집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물론, 사물에 대한 몽롱한 인식이 어쩌면 본질과 맞닥뜨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시인의식의 분출이 좀더 걸러지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우회적인 사물인식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리라. 그런데 이번 시집에서는 그런 불명료함을 벗어버리고자 애쓴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다음 시를 읽어보자. "… / 나는 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비극이라면 / 그 비극 한참 더 깊어야 할 비극입니다./ 개미 몇 마리 기어가는 땅에서 / 아픔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시집 58쪽에서)

이 시 제목은「님」이다. 님에 대한 시는 아무리 잘 써도 평균작이라는 비평이 있고 보면, 필자가 보기에 인용시는 '님' '비극' '개미' '아픔' 등을 뜨겁게 그러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명사:사물 인식이 뚜렷이 드러난 시집은 金宗三 시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너무 크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이 시집에서 표제로 쓰인 바 있는「길」에 주목하고자 한다.

길은 무엇인가? 시인이 가고 있고 이미 가버린 길을 독자 앞에 구체적인 사물인식으로 드러내줌으로써, 시를 읽는 사람들은 시인과 함께 행복한 만남의 길로 출발하여 떠날 수 있다고 본다.

그「길」위에는 사물인식 언어에 구체적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절치부심한 시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심상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6-3. 대교문화 출판사업부

'불교현실'의 역사적 정황과 구조

김용옥 지음「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김용옥 교수의 새로운 저작「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통나무, 1989)는 우리것이 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혀주기에 충분하다.

해방 이후 한국 불교가 걸어온 길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주지직의 선임이나 종권경쟁을 둘러싼 추잡한 분쟁, 외부적으로는 실천종교로서의 가능성을 망각한 채 사회현실에 대한 침묵과 은둔으로 야기된, 부당한 정권에 대한 무비판적인 복속화 경향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형성·유지해 온 핵심 고리를 '미제국주의'라는 틀 속에서 파악해야만 현재의 모순구조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그들과는 영원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불교의 가치체계를 우리 민중 속에서 자생적인 민족세력으로 전화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식, '문화적 식민화'의 방법으로 불교의 중흥과 개혁을 방해하고 불교를 부당한 정권 아래에 안주하도록 획책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80년대 들어 치열하게 전개된 민중불교운동은 불교의 사회적 기능의 회복이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광범위한 민중의 자각적인 불교문화의 성숙 없이 정치적인 운동과 결합함으로써 불교 전체를 포괄하는 개혁운동으로서는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호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이채로운데, 저자에 의하면 '한국불교=호국불교'라고 정식화된 관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호국불교'라는 개념의 근원은 일본인이 자기네의 불교사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한 '鎭護國家'라는 말을 식민시대 어용사학자들이 모방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호국불교에 상응하는 행동이나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호국불교의 개념이 신라때부터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우리 선조들이 항상 불교를 호국이라는 식으로 파악한 것은 결코 아니며, 현대인들이 그렇게 기술하기 위해 지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고문헌의 '護國'에서 '國'은 불타의 나라(Buddha-Ksetra) 또는 護法의 法(Dharma)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대의 개념인 세속적 국가(Nation state)의 의미가 아니며, 불교의 사천왕(持國天, 增長天, 廣目天, 多聞天)의 사천하를 관장하는 四王을 일컫는 것이라 한다.

또한 호국불교의 발생론적 상황에서 가장 큰 오류는 호국의 의미를 국가가 먼저 존재한 후 그 국가를 지킨다고 파악하는 선후도착적 이해방식에 있다.

호국불교의 원초적 의미는 기존 국가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아부나 보호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형성시키는 혁명적인 성격을 띤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호국불교를 혁명불교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경태

부산시 동구 수정4동 1168-34 13통3반 · 대학생

흑인여성의 삶 형상화

「기다려도 神은 오지 않는다」

바람직한 여성상이라면 으레 신사임당을 들먹이곤 한다. 현모양처에 지덕과 예능을 겸비한 신사임당이 모든 여성의 귀감으로 오늘날까지 그 권위를 지켜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역할도 전통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신사임당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여성상 또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여성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 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상을 통해, 올바른 여성의 위상을 모색하려는 작업이다.

이러한 때에 걸맞게 번역출간된 조라 닐 허스톤의「기다려도 神은 오지 않는다」(예문사, 89)는 '진정한 여성문학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1937년 미국에서 발행된 이 책은 흑인 여성의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성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예해방으로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사회·문화·경제 등의 면에서 자립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흑인들의 삶과,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흑인여성 제이니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 내용이다. 그녀는 세번 결혼했는데, 첫번째 남편은 그녀를 일하는 기계로 생각했고, 두번째 남편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그녀가 존재하길 요구했고, 마지막 남편은 그녀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두 사람은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흥겨운 놀이와 춤을 통해 건강한 생명력을 구가함으로써, 앞의 두 관계와 대조를 이룬다. 앞의 두 관계에서 제이니가 원했던 것은 상대방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었는데, 그들로부터 그녀는 하나의 인격체로보다는 일꾼으로, 인형으로 대우받았고, 세번째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줄거리를 통해 이 소설은,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문제는 남녀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사랑할 때에만 해결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이끈다.

여성문학이 여성의 관점에서 세계를 재해석·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소설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여성문제를 남성과의 관계만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한다. 그럼으로써 여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못한채 끝나고 있다. 또한,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를 밝히고는 있지만, 개인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대안을 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논리적 당위성을 앞세워 현실과는 거리가 먼 - 우리가 종종 대하는 여성문학의 상당수가 그렇다 - 줄거리로 비약되지 않고,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돋보인다. 또 흑인들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 이질적이기보다는, 향토색 짙은 우리 소설을 읽을 때 받는 편안함·넉넉함을 느끼게 한다.

문은경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